

□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위협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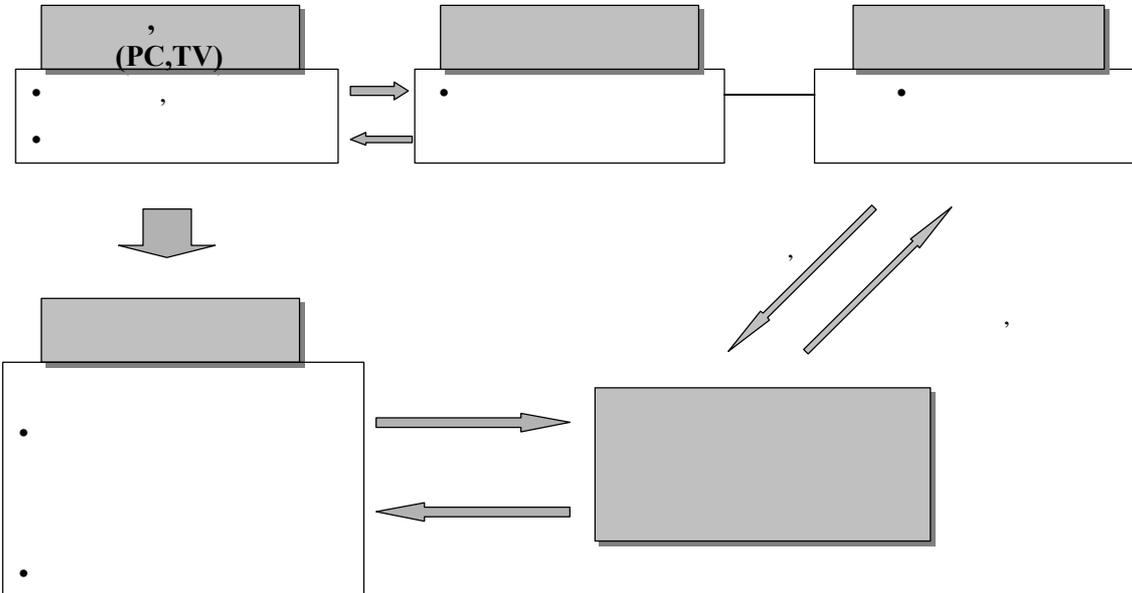
- 최근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인터넷 관련 기업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업종에서도 등장하고 있으며, 그 대표적 사례가 세븐일레븐의 통신 판매 시스템임
- 현재 정보 기술 발전 및 특허 옹호 정책 등으로 비즈니스 모델 특허 인정 추세임
- 공업화 사회에서 지식 사회로의 전환 중에 특허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, 특히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정보 기술 혁명과 지적재산권 혁명의 연결하는 틀로서 향후 기업의 관심이 절실함

○ 비즈니스 모델 특허 증가 사례: 편의점 특허 출원

- 편의점 업계들도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을 가짐
 - 전형적인 유통업이며, 지금까지 특허와 관계없는 업종인 편의점 업계에서도 POS 시스템을 위한 안전, 전자 상거래의 물류와 결제 거점 역할 등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을 가짐
 - 더우기 은행 등과 제휴하여, 금융 서비스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한 지금 편의점 업계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에 더욱 관심을 가짐
- 세븐일레븐 저팬 : 온라인 거래의 수납 대행 시스템 특허
 - 작년 7월 30일 출원되었으며 편의점을 활용한 인터넷 판매 대금 결제 시스템에 관한 특허임
 - 여기에는 개별 거래 내용이 요금 대행 수납자인 세븐일레븐 점포에서는 전혀 표시되지 않는 프라이버시 보호 시스템과 인터넷을 사용하여 리얼타임으로 결제할 수 있는 오픈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음
 - 이 시스템에 의해 구매자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면서, 주문에서 상품 인도에 이르기까지의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음
 - 이는 새로운 특허 전략의 하나이며, 업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특허를 다른 편의점에 라이선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보다 편리한 편의점이 될 수 있을 것임

1) 이 글은 柴田英壽, 伊原智人の『ビジネスモデル特許の脅威』(週刊東洋經濟, 2000年 6月 17日)를 요약 정리한 것임

<세븐일레븐의 인터넷 대금 수납 서비스>



○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2개의 커다란 파도

- 첫째 파도

- 미국의 특허 전문 재판소가 종래 이야기되던 ‘비즈니스 모델은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다’ 라는 가설을 전면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사건
- 그 사례로는 1998년 7월의 스테이트스트리트뱅크 판결과 99년 4월의 AT&T 판결이 있음

- 둘째 파도

- 99년 10월에 시작된 두가지 분쟁 사건
- 하나는 프라이스라인사라는 벤처기업이 세계 최대의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社를 대상으로 소송한 사건이며, 또하나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 닷 컴社가 라이벌인 반즈앤노블社를 대상으로 소송한 사건임
- 아마존에 의한 제소에서는 제소로부터 불과 40일 후(크리스마스 선물 전쟁 직전임)에 시애틀 재판소가 반즈앤노블社에 유사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

-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 인정의 배경

- ① 기술적인 흐름, 즉 정보 기술의 진보에 따른 특허 관련 상황의 변화
 - 현재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비즈니스는 생각할 수 없음
 -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, 소프트웨어가 실현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특허가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임
- ② 정책적 흐름, 즉 특허 옹호 정책에 의한 상황의 변화
 - 산업 정책적으로 특허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여, 발명의 인센티브를 높이려는 정책이 나타나고 있음
 - 강한 산업을 지향한 미국의 경우 80년대 초 이후 발명의 인센티브를 높여, 기술 개발을 진전시키고, 세계적 기술 수준을 지향하였음

○ 시사점 :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중요성

- 지적재산권(IPR) 및 특허의 중요성

-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관심 증가는 사회 변화 중에 발생한 필연적 결과임
- 공업화 사회에서 지식 사회로의 전환 중에, 컴퓨터 프로그램 등 추상도가 높은 기술로 특허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
- 특허는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보호되는 권리임
- 실제 미국의 많은 대기업 경영자들은 향후 지적재산권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느끼고 있음
- 일본의 기업에서도 소니와 토요다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은 지적재산권을 의식한 경영 전략을 검토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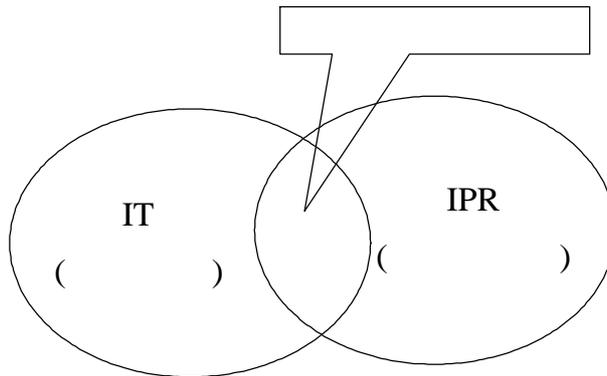
-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 부족

- 일본의 많은 기업은 지적재산권을 경영 전략의 중요 핵심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음
-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지적재산권 취급 부분의 기업 내 위치임 → 대부분 기업에서 지적재산권 부서는 기술부문 또는 법무부문에 속해 있는 정도임
- 만약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없다면, 정보기술(IT) 혁명에서 미국에 뒤쳐진 것과 마찬가지로, 지적재산권 혁명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것임

-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

-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정보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연결하는 틀임
-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지금까지는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정보기술(IT)과 결합한 것으로,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지적재산권으로서 권리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됨

<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지적재산권 · 정보 기술의 관계>



- 지적재산권 혁명에 대응하려는 기업에 있어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커다란 시금석임
- 지적재산권 혁명은 현 정보기술 혁명과 비교하여 그 파괴력이 數倍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, 따라서 지적재산권 혁명에서 성공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 기술 혁명과 지적재산권 혁명의 가교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음
- 時流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, 신속 · 적확(的確)하게, 글로벌한 觀點을 유지하면서 지적재산권 전략을 경영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 함

(황동언)